

제공일자	2008. 12. 15(월)	담당자	류건식 재무연구실장
홍보담당	김 진 역 선임(368-4413)	연락처	368-4431 총 2매

제 목 :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영향 및 보험회사

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퇴직연금시장 판도변화 예상 - 보험회사, 개정안의 영향을 고려한 대비책 강구해야 -

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된 지 3년만에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이 전면 개정되어 오는 12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. 개정된 퇴직급여보장법은 “신규퇴직연금시장의 확대, 근로자의 퇴직연금시장 선택폭 증대, 퇴직연금 전환가시화 등을 가져와 퇴직연금시장의 변화에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, 보험회사는 퇴직연금시장에서의 우위 선점을 위해 다양한 시장경쟁력 강화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”는 주장이 제기되었다.

최근 『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영향 및 보험회사의 대응과제』라는 CEO 리포트를 작성한 보험연구원(원장 : 나동민)의 류건식 재무연구실장은 “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에는 중간정산요건의 강화, 확정급여형 재정검증 근거 및 절차마련, 가입자별 복수 퇴직연금제 도입, 신설사업자 퇴직연금 자동설정, 개인형 퇴직연금 특례제도 확대 등이 이루어지도록 규정되어 있다. 이와 같은 개정내용은 신규 퇴직연금시장의 증대, 근로자 및 사용자의 퇴직연금 선택폭 확대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, 이로 인한 금융권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”라고 주장하였다.

또한 류건식 재무연구실장은 “이번 개정안의 경우 특히 확정기여 및 개인퇴직연금 활성화 등에 보다 초점이 맞추어져 보험사보다 상대적으로 은행 등에 유

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보험사는 개정안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전적 대비책 마련이 강구되어야 한다” 고 보았다.

이에 따라 보험사는

첫째, 설계사중심의 판매채널을 퇴직연금가입 등에 적극 활용하고,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괄서비스체제 구축 등으로 다금융권과 차별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.

둘째, 법개정으로 인해 사용자 및 근로자의 상품선택폭이 넓어짐에 따라 이에 부응한 다양한 시스템체제(DB형과 DC형을 결합한 복수 퇴직연금 시스템 개발 등)의 정비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보았다. 특히 연합형 DC제도 도입 등 퇴직연금 지배구조의 변화에 따른 퇴직연금 가입형태 변화와 연계된 시스템 도입 및 개발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.

셋째, DC형 퇴직연금중심의 법개정으로 인해 운용능력 제고를 위한 전문인력의 확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다. 또한 DB형 재정검증 확인 강화 등으로 적립금의 적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연금수리 및 회계전문가 양성을 통해 DB형 퇴직연금시장에서의 차별성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.

이와 더불어 퇴직연금보장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확정기여형의 활성화에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는 점진적으로 개인퇴직연금계좌 및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시장에서의 선점 강화 전략이 요구된다고 보고, 보험회사는 기존의 확정급여형 위주의 퇴직연금시장 강화 전략이외에 중소형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진출전략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.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http://www.kiri.or.kr>